

* 지난주 강단제목 : 절대 불가능 앞에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습 3:17, 마 1:21-23)

(1부) 오전 8:30 · 인도 : 심한결 목사, 설교 : 정윤돈 목사

(2부) 오전 11:00 · 인도 : 박범서 목사, 설교 : 정윤돈 목사

★ 입례송	오르간
★ 예배의 부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 응답송	찬양대
★ 예배선언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 신앙고백	사도신경(새번역) / 다같이
★ 경배의 찬양	5장. 이 찬지간 만물들아 / 다같이
★ 고백과 용서의 말씀	설교자
★ 주기도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주기도송) / 다같이
★ 성시교독	42. 시편 98편 / 인도자와 회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라도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못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 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다같이)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1-8)

찬송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 다같이
중보의 기도	(1부) 배송찬 장로 (2부) 양경심 장로
성경봉독	시편 23:1(구약 818쪽), 골로새서 2:9-10(신약 326쪽) / 인도자
찬양	(1부) 예수는 그리스도 / 시온찬양대 (영상) (2부)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 (2026년 WRC 주제곡) / 시온찬양대 (현장)

말씀의 선포 **완전 충분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
-복음으로 여는 골로새서- / 설교자

봉헌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 다같이
교회소식 설교자

★ 결단의 찬송 예수 전하세 / 다같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 전하세*
사단의 왕국을 깨뜨린 왕의 왕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주의 주
죄에서 해방하신 어린 양 예수 감사하세 찬양하세 증거하세 (*반복)

★ 파송의 말씀 설교자

★ 봉헌기도·축도 정윤돈 목사

다음 주 기도 : (1부) 임근일 장로 (2부) 최철규 장로

★ 표는 일어서서 · 경건한 예배를 위하여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부서예배

유치부	오전 11:00	인도, 설교 : 이현규 목사 · 장소 : 3층 제2랩넌트실
태영아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이현규 목사 · 장소 : 3층 제1랩넌트실
어린이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박범서 목사 · 장소 : 1층 비전홀
중고등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심한결 목사 · 장소 : 5층 참사랑홀
대학청년부	오후 3:30	인도, 설교 : 박범서 목사 · 장소 : 5층 참사랑홀

* 매월 마지막 주 주일은 어린이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연합으로 예배드립니다. (장소 : 5층 참사랑홀)

수요기도회

시간 : 오전 10:30 / 오후 7:30 · 장소 : 1층 비전홀

기도	(오전) 유경선 권사 (오후) 조현지 집사
인도, 설교	(오전) 김양순 목사 (오후) 이현규 목사

다음 주 기도 : (오전) 이은희 권사

(오후) 최송화 권사

금요심야기도회

시간 : 오후 8:00 · 장소 : 1층 비전홀

기관보고	나의 237(아프리카)
설교	심한결 목사

다음 주 기관보고 : 나의 237(오세아니아)

새벽기도회

월~토 새벽 5:30

(월) 심한결 목사
(목) 박범서 목사

(화) 이현규 목사
(금) 박범서 목사

(수) 이현규 목사
(토) 심한결 목사

2026 참사랑교회의 응답

 참사랑교회

오직성령 오직복음 오직예수

(이사야 34:16, 디모데후서 3:16-17)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주 주일 오전 10시 20분부터 10시 40분까지 4층 당회실에서 새가족교육이 진행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친절히 신앙생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교회소식

- 제29차 세계렘넌트대회가 은혜 속에서 성료되었습니다. 본교회에서는 69명의 성도들이 참석하여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수고한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하반기 참사랑장학금 장학생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4층 교역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대학생 및 대학원생
 - 담당 : 박범서 목사
- 교회학교와 각 부서별 여름훈련일정을 두고 헌신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8.15 청년부 세계청년수련회
 - 8.22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 복음요일 암송과 구원의 길 그리기를 통해 300명전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1층과 5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 예배시간과 헌금안내에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오전예배 - 1부 : 오전 8시 30분, 2부 : 오전 11시. 장소 : 5, 6층 참사랑홀
 - 수요오전예배, 수요오후예배, 금요일아기도회 / 1층 비전홀
 - 매일 새벽기도회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녹화하여 새벽 5시 30분에 전체 소통방에 올라옵니다.
 - 주일 각 부서의 예배시간입니다.
 - 오전 11:00~12:20 유치부
 - 오후 2:00~3:20 태영아부
 - 오후 2:00~3:20 어린이부, 중고등부
 - 오후 3:30~4:50 대학청년부
 - 매일 마지막 주일은 오후 2시부터 램넌트부서 연합예배로 드려집니다.
- 다락방 및 지교회 모임은 시간을 정하셔서 줄이나 전화통화,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나 녹화를 하여 양육과 교제와 말씀포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가능하면 토요일에 헌금을 아래의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 입금하실 때 이름과 헌금명을 함께 기록해서 입금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 참사랑교회)
 - (예 : 000주정 / 반트시 한글기금 7글자 이내)
 - 일반헌금 : 신한은행 100-013-769840 - 주정, 십일조, 감사, 절기, 차량, 기타헌금 등
 - 헌당헌금 : 신한은행 100-022-072886
 - 장학헌금 : 신한은행 100-033-576780
 - 선교헌금 : 신한은행 100-033-576822
 - RUTC헌금 : 신한은행 100-035-010731
 - * 헌당, 장학, 선교헌금, RUTC헌금을 제외한 헌금은 일반헌금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 기만 및 교우소식

- 교역자의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돈 담임목사 : 8.9~11 PMAW수련회-덕평 RUTC, 8.15 세계청년수련회-덕평 RUTC
 - 박범서 목사 : 8.10~14 교역자 휴가
- 군과 해외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은 주로 14면에 있습니다.)
- 교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권사, 김원일 집사, 이영경 집사, 이순덕 권사, 박숙자 집사, 김춘례 권사)

■ 참사랑 RUTC소식 (정치, 경제, 문화, 보건, 복지, 과학, 예술, 체육, 예능, 교육, 군경, 공무원)

- 금토일시대를 준비하는 참사랑 RUTC 램넌트의 활동신청을 받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및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체카톡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예교실 : 한 달에 1번(토요일) 10시, 2층 식당. (모집 중)
 - 트릭캉체조교실 : 당분간 운영중지. (담당 : 정수환 집사 010-5527-6067)
 - 스키&스노보드 : 동계. (담당 : 박찬열 집사 010-8760-0756)
 - 탁구교실 : 매주 토요일 11:50분, 2층 로비. (담당 : 최혜숙 권사 010-9430-9862)
 - 수목캘리그래피 : 첫째, 셋째 토요일 19:00, 2층 식당. (담당 : 김순호 장로 010-8630-4414)
 - 기타클래스 : 매주 토요일 14, 17, 19시, 4층 당회실. (담당 : 이명 장로 010-2222-7624)
 - 축구&풋살 : 한 달에 1번. (담당 : 김승훈 집사 010-2098-3141)
 - 트리니티찬양교실 : 첫째, 셋째 수요일 14:30분, 3층 제2렘넌트실. (담당 : 임예진 권사 010-6225-9661)
 - 취미그림교실 : 첫째, 셋째 토요일 17:30, 2층 식당. (담당 : 조수영 집사 010-3777-8315)
 - 복음영어클래스 : 주일(성인) 19시, 토(RT) 3:30분, 1층 초등부실. (담당 : 주은경 권사 010-9542-8212)
 - 드럼클래스 : 매주 토요일 6, 7시, 5층 참사랑홀, 8시 1층 비전홀. (담당 : 김승훈 집사 010-2098-3141)

- 12) 피아노&기초음악이론 : 개인별 레슨 진행. 4층 찬양대실. (담당 : 이석 집사 010-5067-1426)
- 13) WIO스마트팜 : 비정기적 열린 포럼 진행.
2. 연가, 연극, 영화, 방송, 뮤지컬 탐을 모집합니다. (담당 : 박범서 목사 010-6335-3719)
3. '서예교실'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문의 : 이현규 목사 010-9736-3556)
4. 피아노&기초음악이론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심한결 목사 010-8206-2024)
- 1) 강사 : 이석 집사. 2) 레슨방법 : 주1회 1시간(개인레슨). 3) 레슨장소 및 시간 : 4층 찬양대실, 요일 협의.
- 4) 레슨비(4주 기준, 1인당) : 피아노 10만원 / 기초이론 6만원. 5) 모집인원 마감 때까지.
5. 취미그림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김순호 장로 010-8630-4414)
6. 성악 발성반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김화권 장로 010-2334-6713)
- 1) 강사 : 김화권 장로. 2) 레슨장소 : 4층 찬양대실.
- 3) 레슨방법 : ① 매주 화요일 오후 2~4시(회비는 참석할 때마다 1.5만원).
②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오후 12시 30분(회비 : 월 6만원).
7. 자전거 타는 방법 교육 및 안전교육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 1) 대상 : 초, 중, 고교생. 2) 장소 : 올림픽공원(평화의 광장). 3) 기간 : 모집 후 결정.
- 4) 교육기관 : "스포츠레저교육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 : 강인규)
8. 자격증 상담(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생활체육지도사 등)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하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원격평생교육원 (문의 : 최영경 팀장 010-6777-8692)

■ **훈련 및 집회소식 (해당되시는 분들이나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8월 15일 토요일십예배는 세계청년수련회 관계로 휴회입니다.
2. PMAW수련회가 '세계렘넌트를 세우는 땅대(사62:6-12)'를 주제로 8월 9일(일)부터 11일(화)까지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3. 제50차 사랑부렘넌트대회가 '24, 영원의 사람들(히13:8)'을 주제로 8월 12일(수)부터 14일(금)까지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4. 세계청년수련회가 '나의 삶을 없애야 세계를 살릴 수 있다(갈2:20)'를 주제로 8월 15일(토) 열립니다.
5. 237화요제자훈련이 8월 25일(화)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8월 행사 및 일정

구분	본교회 일정 / 세계복음화전도협회 일정
1주차	렘넌트부서연합예배(2) / 제29차 2026세계렘넌트대회(4~7, 대구 EXCO)
2주차	장학생 선발공고(9) / PMAW수련회(9~11, 덕평 RUTC), 청소년 777합숙(12~15), 제50차 사랑부렘넌트대회(12~14), 세계청년수련회(15)
3주차	RM부모학교(17), 청소년합숙(중·고등, 17~20)
4주차	장학위원회모임(23) / 237화요제자훈련(25, 덕평 RUTC), 렘넌트데이(29)
5주차	하반기 장학금수여식, 렘넌트부서연합예배(30) / 북미주 산업인대회(9.1~2, 뉴저지 서밋장로교회), 미주 영산업인수련회(9.2)

8월 봉사위원 안내

구분	봉사위원
헌금위원	(위원장) 김현 (위원) 김금남 라종화 신승훈 박희영 양정아 이정미 임소순 임혜연 박주은 이영경
성찬위원	(5층) 김경희A 배승찬 양경심 임근일 최철규 이은숙 최신혜 이미자 (6층) 김금남 최진희
안내위원	(위원장) 김경희A (1층) 양경심 김경희A (5층) 최신혜 이은숙 유경선 고진순 (6층) 이정미
주차안내	안수집사 전원

■ 연간 기도제목

1. 참사랑교회를 통하여 지역복음화를 위한 3천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2026년도는 ‘오직성경’ 안에서 ‘참진리’를 발견하고, ‘오직복음’으로 ‘참치유’를 누리며, ‘오직예수’로 ‘참구원’을 증거하는 참사랑교회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2. 우리 총회를 통하여 민족복음화를 위한 40만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마르틴 루터, 존 칼빈의 개혁주의 신학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교리에 기반한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속해 있는 참사랑교회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성경적인 신학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총회와 협회와 노회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3. 한국교회를 통하여 237나라 5천 종족,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1천만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 2026년 참사랑교회 ‘실천목표 기도문’

- “2026년도도 참사랑교회 실천목표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가운데 전도자, 제자, 증인의 응답을 앞당기게 하소서”
- (1) 주일강단메시지 성취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 (2) 복음요절을 암송하여 생명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 (3) 성경 1독, 성경 쓰기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 (4)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 그리기를 통하여 전도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 (5) 300영접, 30다락방, 3지교회를 통하여 성경적 전도운동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 (6) 5인 1조의 팀을 형성하여 전문교회 지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 (7) 나의 237나라와 나의 선교사를 찾아 선교의 비밀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 (8)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현장에 참사랑RUTC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 (9) 유튜브 10분 복음소식을 통하여 비대면 생명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 (10) 복음컨텐츠 제작을 통하여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구축되게 하옵소서.
 - (11) 300전도캠프 현장이 지속적으로 열리게 하옵소서.
(공원, 병원, 커피숍, 학교, 역, 직장, 쇼펍센터, 노인정 등)
 - (12) 금토일시대에 사실적인 3가지 딸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 1) W.I.O 협동조합 (스마트팜, 인공지능, 로봇, 생명, 우주)
 - 2) 치유시스템 구축 (중독, 정신, 영, 건강)
 - 3) 예체능 협동조합 (스키, 체조, 탁구, 축구, 악기 등)
 - 4) 고령화시대준비 (100세 목상요가, 120세 모세건강법)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 5) 복음적인 교육복지 시스템이 모델적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 (13) 70나라 여행캠프를 통하여 세계선교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 (14) 70나라에 병원, 약국, 목상 등 영혼, 정신, 육신 치유의 절대대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 (15) 참사랑전도학교, 참사랑집중전도신학원, 참사랑집중선교사훈련원, 참사랑핵심(주일)을 통하여 부흥의 응답을 주옵소서.

현당을 위한 헌신

70인 요원 (24명) /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계3:12)”	
김경수·강승자·김대식 최정웅·전장자 유경형·리종화 주재진·권해경 김경환·최복순 전인숙·김원일 김경희·임근일(양은숙)	
신승훈(박영인) 박점순 정연규(이은숙) 김중복(한명희) 박지영	
300인 용사 (132명) / “내가 ...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 주리니(삿7:7)”	
정운돈 최신영 양은숙 박영인 윤두영 강창숙 최봉식 최신주 박동영 최진희 오국환 이은희 조남은 이은옥 최영철 최후순 최명홍 이계옥 구자성 송영희 허경원 홍승희 박희순 이수용 이미자 유승범 주은경 이영순 박엽재 양경심 강현자 김영길 박혜숙 김석재 손혜옥 여동훈 백소정 서정례 박철남 이상춘 서희석 나향남 이승재 심주환 김현숙 이용곤 김경희 송길호 최신혜 채용민 이효숙 오신자 정세안 박희영 정수환 최송화 박준민 황인선 주철우 정선희 권은희 민정환 이명재 구윤진 배형식 박인자 여상훈 노선희 김요셉 김해정 김남숙 정민호 이서은 최요한 오난희 장성순 박난순 김순자 김 현 임경미 박범서 김진아 김미선 최철규 현영화 장영호 여준식 김성열 김순호 배승찬 매명자 산옥희 김태운 이남현 오영숙 정향란 강요한 윤홍광 임혜연 박광현 박성혁 이신순 이희숙 왕진상 김선옥 김중남 김주영 김영진 변연숙 윤소현 김성순 김요한 백순덕 김금남 김복남 임영순 김옥천 김순이 서성원 박서진 이현주 최영애 김선희 강경현 장경희 유경선 정년영 양은옥 공영호 박봉기 박준식 이영희	

지난주 하나님께 드린 예물

주일헌금	정운돈 최신영 최정용 전정아 박범사-김진아 심한결-정지혜 이현규-김수진 전인숙-김원일 김정엽 유경형 라종화 주재남-권혜경 이수용 오국환 정영규 이은숙 여동훈 박동영-최진희 최명홍-이계옥 정세환 박희영 신승훈 박영인 김 현 김경희 배승찬 양경심 임근일 최철규 장영균 최신혜 이미자 김금남 유승범 주은경 김순호 김영진-최혜숙 이 명 이명재 구윤진 강현자 정년영 송영희 오신자 김계자 이정운 강공이 김희권 최재경 이미화 김용관-김정순 김경애 임영순 김일호 홍미경 박인자 김재귀-장소녀 김춘례 호민수 김미자 이은희 손병순 박희영 김순자 김영순 김주영 이영순 이순근 김정연 주철우-정선희 윤순옥 임소순 이상구-이정미 정민호-이서은 나경철-신현식 박숙자 박서이 심성하 여 명 남호정 유재숙 한영화 박난순 권은희 안나근 안예근 유승환-최아현 김지후-이현주 오이라 송길호 이민형 임혜미 임혜연 도정호 박찬열 조현지 김태운 손혜옥 최일숙 양은숙 최영국-김윤지 정예승 정수환 이연균 김소라 이효숙 김승훈-김혜인 황혜주 유영식 이민수-김숙희 한경숙 김영희 조부영 채송아 안선희 방주은 여 명 진 배준서 무명15
십 일 조	정운돈 최정용 최신영 박범사-김진아 심한결-정지혜 이현규-김수진 김원일-전인숙 홍미경 주철우-정선희 김경연 윤순옥 손병순-박정수 김경애 김지수 김애경 임소순 김용관-김정순 송영희 배승찬 배준서 여동훈 임경미 김나경 고진순 홍경아 김현상-이미화 이상구-이정미 신승훈-박영인 유영식 최명홍 조부영 박지영 김지후-이현주 안선희 유경형-라종화 오국환 최일숙 최보인 권은희
감사헌금	정운돈 최정용 최신영 심한결 윤태자 김 현 김용관-김정순 김경애 박학규 김경복 박진상 양경심 김미자 이영경 김애경 정민호-이서은 홍경아 김지후-이현주 정수환 방주은 이은숙 최신혜 박영인 한경숙 유경형-라종화 이계옥 박동영-최진희 채송아 김양순 손혜옥
심방헌금	
차량헌금	박동영-최진희
일천번제	최신영
선교헌금	최정용 최신영 심한결-정지혜 김미자 임영순 임소순 김용관-김정순 김현상-이미화 이은희 박서이 주철우-정선희 유승범 주은경 방주은 정수환 조현지 고진순 김순호 김승훈-김혜인 유영식 박동영-최진희 오국환 유경형-라종화 최일숙 주식회사 퓨토
치유센터	정수환 정민호-이서은 방주은 (*2026년도 총계 418,000원) (*2025년도 총계 5,009,000원 *지출총계 500,000원)
헌당헌금	정운돈 최정용 최신영 전정아 김진아 심한결-정지혜 임영순 김미자 박서이 주철우-정선희 임소순 김용관-김정순 유승범 주은경 방주은 조현지 정수환 김나경 고진순 김순호 김승훈-김혜인 박동영-최진희 오국환 최일숙
장학헌금	최정용 최신영 김미자 주철우-정선희 박서이 방주은 유승범 주은경 정수환 김순호 김승훈-김혜인 박동영-최진희 유경형-라종화
어학연수	정수환
RUTC헌금	최신영 이현규-김수진 김미자 주철우-정선희 방주은 임혜미 정수환 김승훈-김혜인 유영식 박동영-최진희

* 이름이 누락되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2026. 7. 29. ~ 2026. 8. 4.)

헌당헌금 (2026년도 합계)	83,771,285원	차량 구입헌금 (2026년도 합계)	620,000원
참사랑 RUTC헌금 (2026년도 합계)	9,162,172원	어학연수헌금 (2026년도 합계)	1,547,000원

헌당대출잔액 : 일본법화 449,000,000엔 (한화 4,265,500,000원 / 100엔환율=950원기준)			
일반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13-769840	참사랑교회	헌당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22-072886	참사랑교회
선교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33-576822	참사랑교회	장학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33-576780	참사랑교회
참사랑 RUTC : 신한 100-035-010731	참사랑RUTC		

2026년 구역조직

- 교구장 : 정운돈 목사

- 1교구(1~3지역) 담당교역자 : 박범서 목사 | 총무 : 이미자 장로

지역/ 전도인	구역 (담당장로)	구역장	권찰	구 역 원 (※ 밑줄은 미션 홈 이상 훈련수료자)
1지역/ 최진희	①오금1 (오국환)	박인자	최진희	최정웅 전정아 박동영 최진희 박서운 박찬열 배형석 박인자 배영광 정우연 배고은 박점순 이신순 최일숙 조영희 장혁준 최봉식 최신주 최해나
	②오금2 (박동영)	김주영	주은경	정운돈 최신영 정예승 정예준 정예건 이재풍 김주영 이승현 이지훈 유승범 주은경 유현나 유현상 유준상 유민상 주종성 박학규
2지역/ 이미자	③방이1 (이수용)	양경아	유경선	이수용 이미자 이채은 여준석 양경아 여 명 여수아 정철호 유경선 이진수 장동주 정동훈 이은수A 김흥기 문길준 김갑래 임상식 지복순 박서이 박필수 박소현 박경구 박도경 박세연 남호정
	④방이2 (최철규)	홍미경	이미자	최재혁 홍미경 최옥현 최도연 박은진 윤소현 윤대현 윤치현 박현우 김정수 최종현 김명자 김성배 강길자 김운우
	⑤천호 (유경형)	라종화	홍경아	유경형 라종화 이대수 홍경아 이지오 이태이 홍형표 유승환 최아현 유나림 유하림 이영숙 박철남
3지역/ 김금남	⑥잠실 (이은숙)	조부영	김소라	조부영 양승현 양승우 황규철 김소라 황다인 황세희 박광현 조영주 박근혜 박지혜 박지영 최보인 권순민 최형란 권유나 권유빈 이효숙 채송아 채정우 전민식 구순자 정재홍 전해진 정리아 조현지 오은사 권구현 김미자
	⑦송파 (임근일)	양은숙	박승숙	김금남 김수형 김수민 임근일 양은숙 임혜연 유영석 박승숙 유세정 유진아
	⑧하남 (김경희)	김영희	한영화	이현규 김수진 이시은 김경희 현백규 김현아 김영희 황혜주 강정자 최철규 한영화 최종인 손병순 김준식 윤수연 조수영 홍주원 최영국 김윤지 최리오 심성지 심성하 유지열 송수민
서울 경기		㉔박범서 목사		장미선 김희서 김원준 김유진 문예은 최한나 최한별 권우현 정민진 김대욱 박유신 김혜원 김기재 고정호 고정협 스모도 강지우 전영종 김유나 이재준 이시연 손완식 양은예 손보미 손재원 손보국 이정택 이은수B 이가원
		㉕심한결 목사		권세미 원철호 홍정아 강예은 강예림 김형준 박현주 김민규 최영희 김정남 김효경 권영숙 구성하 김수정 김성애 이아름 예 코 박준영 박준은 박지유 김미선 이혜승 이혜준 이현우 이은옥 조유연 조용연 이재운 민희선 김가원 김도원 도상철 채희은 도성우 김경현 강소영 김유은 김소은 김석재 김정길 박순연 박준민 황인선 박수진 박수정 이종관 서숙정 이주한 이지한
		㉖이현규 목사		윤지은 최명자B 고대중 박형진 류성미 박하늘 박하론 안진성 문경화 안서운 안채윤 안신영 신한수 이은주B 신민승 신연서 한경숙 변지영 박형석 강돌봉 박요셉 구황경 이선미 구아라 구지후 이기덕 김복란 이광훈 김명화 최민지 최민기 천 용 이윤희 최지원 조현우 이채원 여상훈 노선희 여준후 여선후 박은선 김준일 최숙영 김하은 김유은A 김은성 송형자 정화영 한주아 한태민 최영철 최후순 최요한 최지은 최두영 오주희 최하랑 최하을 최하린 김해수

※ 위 명단은 각 구역원과 기도대상자의 명단입니다.

2026년 구역조직

- 2교구(4~6지역) 담당교역자: 삼한결 목사 | 총무: 양영심 장로 - 3교구(7~9지역) 담당교역자: 이현규 목사 | 총무: 최신혜 장로

지역/ 전도인	구역 (담당장로)	구역장	권찰	구 역 원 (※ 밑줄은 미션 홈 이상 훈련수료자)
4지역/ 김계자	⑨오금3 (정세완)	박희영	임정미	정세완 박희영 김 현 임정미 김 수 김혜린 정연규 <u>이은숙</u> 김춘례 임수미
	⑩오금4 (주재진)	신혜선	권혜경	김계자 <u>주재진</u> 권혜경 주예진 신혜선 유연정 유지훈 임경순 <u>양은옥</u> 임선규 김태운 김근녀 이종남 김영순
	⑪오금5 (최명홍)	이계옥	최송화	<u>최명홍</u> <u>이계옥</u> 최송화 정수환 정재환 전성배 박은서 김영중 김준영 김민성
5지역/ 양경심	⑫올림픽1 (김현)	장길순	이영순	유운식 장길순 유효진 유운재 이영순 박준석 설정화 박수환
	⑬올림픽2 (여동훈)	정년영	김정연	정년영 김정연 한공순 <u>허경열</u> 허지선 박성진 박서연
	⑭올림픽3 (양경심)	이현주	양경심	박엽재 <u>양경심</u> 박주은 박주영 김수형A 이현주 김지후
6지역/ 김순호	⑮강남 (김순호)	손혜옥	임소순	김원일 전인숙 김구영 빌 마 김의찬 김주찬 안경호 <u>김순호</u> 안도근 안나근 안예근 손혜옥 김주원 김혜원 임소순 천혜숙 강현자 김나경 김희경 김경애 이정민 조연희 조재형 조현근 고경훈 김일호 김두원 김세희 안선희 안민희 안현희 최영혁 김현진 박진수 윤성희 권혁복
	⑯구리 (유승범)	이정미	임영순	이상구 이정미 이진형 최가은 이민형 이주형 전진 임영순 임동영 장유진 이정수 장유선 이진우 김명철 장유미 김지유 전은정
7지역/ 이명	⑰오금6 (배승찬)	이명	임예진	박범서 김진아 <u>배승찬</u> <u>이 명</u> 배준서 배현서 김창균 임예진 김하은 김재승 윤순옥 구자성 <u>송영희</u> 이명재 구유진 이미화 김자영C 김민영 김근호 백순범 윤혜영 백소을 백하을 박환희 오상수 원태연 원아연 김희권 김승훈 김혜인 김도연
	⑱오금7 (이명)	최혜숙	홍명숙	<u>김영진</u> 최혜숙 김시연 김시아 최아영 홍명숙 손가를 손하늘 오신자 니콜라 박경아 라 나 아멜리 김순자 이병부 김경열 김운태 박숙자 도정호 유경순 도규철 이연균 도지민 김선희 <u>김순호</u> 이 하 안지용 안수현
	⑲오금8 (여준석)	고진순	이선아	<u>오국환</u> 이은희 오유라 오아라 유제숙 고진순 방주는 정문철 이선아 정유희 정은유 김창대 이정임 김아리 김아영 위준승 문정민 김애경
8지역/ 최신혜	⑳문장 장지 (라종화)	최신혜	이가예	송길호 <u>최신혜</u> 송은수 송영민 송지수 신성원 이가에 신현옥 신지유 <u>장영균</u> 송미경 장현규 장현우 장이준 장이서 장성순 박난순 장하영 장하은 민경환 권은희 나경철 신현식 니주희 니종훈 박진순 박주봉 박주승 장소녀 김지용 김장영B 유정빈
	㉑가락 (정영규)	백소정	정선희	<u>여동훈</u> 백소정 여현지 여종원 여은성 주철우 정선희 주이서 주이준 주이연 이용도 최재경 이다연 이아연 정민호 이서는 노은현 손상현 <u>이균재</u> 이순근 이수앤나 허가이 임혜미 송창범
9지역/ 박영인	㉒거여 마천 (최진희)	박영인	이순덕	<u>신승훈</u> <u>박영인</u> 신동윤 이정윤 이순덕 이영경 호민수 정은숙 박지현 이 석 김재우 유충현 <u>강공이</u> 유승호 전주율
	㉓강동 (신승훈)	정향란	김숙희	삼한결 정지혜 심주인 심지연 심승언 정향란 이민수 김수화A 이하연 이하준 김은영 차영민 차승민 장영호 소선미 함조식 소속현 함재이 오인태 김자영B 오하림 오하윤 <u>김선옥</u> 김지수 김성재 윤태자 정창호 김미현 정승주 정승우

절대 불가능 앞에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복음으로 여는 스바냐-

스바냐 3:17, 마태복음 1:21-23

들어가는 말씀

우리는 왜 300%의 응답을 받아야 하는가. 최근 WRC 리더수련회 메시지에서는 300%를 넘어 무려 1,500%의 응답을 이야기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체가 이미 300%의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300%의 응답이란, 곧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며, 세계를 살리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내 건강만을 위해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건강까지 보살피 줄 수 있을 만큼 목표를 두고 건강관리를 해야 하며, 나의 전문성이 경제적 시스템이 될 정도로 현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진정으로 현장을 아는 사람은 알래스카의 얼음판에서도 냉장고를 팔고 중동의 사막 한가운데서도 모래를 판다. 실제로 사막의 모래는 입자가 부드러워 건축용 골재로 쓸 수 없기에, 건축용 모래를 사막으로 수출하여 파는 사업가들이 존재한다. 이처럼 현장과 시스템을 알아야 경제의 응답을 받는다. 혼자서만 발버둥 치면 결코 큰 돈을 벌 수 없으며, 모든 것이 자체적으로 자립하여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전도협회본부의 시스템을 보며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수만 명이 모이는 집회가 어찌 헌신과 회비, 그리고 은혜의 토피바퀴 없이 거저 돌아가겠는가. 그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성도들은 말씀300%, 기도300%, 미션300%, 경제300%, 그리고 하늘보좌의 배경300%의 응답을 받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것을 인생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지만, 우리는 다르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어떤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까?"를 24시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25시 영원토록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300%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의식주를 걱정하고 미래를 불안해하며 불만과 불평 속에 갇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순간을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상의 목표는 이루고 나면 오히려 더 큰 갈등과 괴로움을 가져오지만, 복음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축복은 어마어마하다. 과거 고아원과 장애인시설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며 그들의 삶을 지켜보았기에, 내가 구원받고 누리는 작은 일상조차 얼마나 눈물나게 감사한 축복인지 절실히 안다. 그렇다면 왜 그런가? 행복을, 성공을 우리 힘으로 찾아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찾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세상을 살릴 '영적 황제의 신분을 가졌다. 어린 시절,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좋으며 다재다능한 친구들이 많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저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강렬한 자부심이 있었다. 세상 친구들이 욕을 하고, 본드를 흡입하고 마약을 하며 타락의 길로 끌려 다닐 때, 우리는 영적 서민의 자존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세상 서민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닌 영적 서민이 먼저 되길 바란다. 내비게이션 없이 길을 떠나다 불안하지 않은 이유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이면계약을 주시고 영원한 언약의 여정을 이끌어 가심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서론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바로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인물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타락하고 배신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뜯어고쳐서라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신다. 자녀가 아무리 말썽을 피우고 부추해도 부모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듯,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러한 존재이다. 이 영적 자부심이 있다면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성공도 부럽지 않다.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 있음을 잊지 말라. 10년 넘게 우리 장애인시설에 자원봉사를 오던 서울대, 한양대, 경희대의 저명한 유대 교수님들이 계셨다. 우리 위에서 음악을 할 때는 한없이 멋있어 보였지만, 대화를 나눠보면 과거의 목은 상처를 꺼내며 "내가 얼마나 지쳐분해 살았는지 아느냐"고 하소연하고 서로 치졸하게 다투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뿐이었다. 심지어 어떤 서울대 교수는 자녀의 입시 부정을 해서 봉사활동 증명서를 써달라고 연락이 오기까지 했다. 돈과 성공 앞에서는 세상 엘리트들도 다 이처럼 연약하고 무너지는 존재들이다. 우리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복음으로 다 살려내야 한다. 하나님은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를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시고 영적 황제로 만드신 전능자이시다. 본문 스바냐 3장 17절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고 선포한다.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오히려 찬양을 부르시고 기쁨을 주재하지 못하신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보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다. 과거 성질 스남은 불교의 깊은 도를 닦은 끝에 "석가모니도 지금 지옥에 있고 나 역시 지옥으로 갈 것이다"라는 뼈아픈 진실을 유언으로 남겼다. 평생 고기도 먹지 못하고 벽을 보고 수행하며 번뇌만 짊어진 채 평생을 바쳐도 진리를 찾지 못하면 지옥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라고 분명히 선포하셨다. 그리스도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는 순간, 모든 신앙생활은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쁨의 여정이 된다. 신학원을 다니고 훈련을 많이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었음에도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체험이 있었기에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적고 순교의 길까지 기꺼이 걸여갔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속지 말라. 내가 주신 다른 동기, 이유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동기이고 이유가 되어야 한다.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4대손으로 태어난 고귀한 왕족이었다. 당시 귀족들처럼 백성을 착취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평생을 호위호식하며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타락한 사탄의 나라에 맞서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의 길을 기꺼이 선택했다.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 '숨겨둔 자, 감춰둔 남은 자'의 사명을 다한 것이다. 우리 역시 교회와 현장에서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손흥민 선수가 축구장에 들어서면 감독의 눈이 자연스레 그에게 머물 듯, 여러분이 예배에 입할 때 목사님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사랑스럽게 머무는 참된 영적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300%가 되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이다.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하는데 왜 평개냐. "언약을 듣기만 해도 응답받는다"는 리더메시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한 번도 내 영적 상태를 그리스도의 결론으로 맺어본 적 없이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이 언약이 맞습니다. 내가 이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라고 아멘으로 화답하기만 하면 된다. 훈련 받고 메시지 듣고 어려운가? 그 사람은 절대 응답을 받을 수 없다. 어제 체육관에서 두 아들을 키우는 한 어머니를 만났다. 큰 아들은 부산의 명문 영재고등학교 1차에 합격해 카이스트 진학을 목표로 공부만 하는 아이인데, 공부가 전혀 어렵지 않라며 억지로 운동을 끌려온 아이였다. 반면 둘째 아들은 공부에 뜻이 없어 부모가 전 세계 30여 개국을 여행하며 공부하는 '허반하(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하면서 살자)'라는 대안학교(허반하 세계여행학교)에 보냈다고 한다. 그 아이는 지금 이집트 홍해 바다에서 스낵스쿠버 자격증을 따고 새까맣게 탄 얼굴로 낙타를 타며 터키로 향하고 있다며 사진을 보여주었다. 복음이 없는 세상의 부모조차 자녀의 달란트를 찾아주기 위해 이토록 헌신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언약의 여정이 어찌 힘들고 고통스럽기만 하겠는가. 힘들기만 하다면 점검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깊이 찾아 누리라는 랩멘트가 되기를 바란다.

1.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들과 그 이유

1) 스바냐 1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고 선포하신다. 이는 노아의 홍수시에 네피림과 폭력, 우상숭배에 빠진 타락한 인간들을 썩 썩아버리겠다고 진노하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창 6:6-7). 하나님이 이토록 극도로 진노하시며 재앙을 경고하신 이유가 1장 4절부터 6절에 낱말이 기록되어 있다.

첫째, "남아 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라고 하셨다. 바알과 아세라는 가난한 원주민들이 섬기던 풍요와 다산의 우상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감사하기는커녕, 오직 눈앞의 먹고물과 성공만을 위해 경쟁을 찾아가고 부적을 붙이며 우상숭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우리 어머니는 생전에 늘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곁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잠10:22)"라는 말씀을 붙잡고 근심 없는 재물을 기도하셨다. 비록 평생 빛을 지고 재물은 없으셨지만, 그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근심, 걱정 없는 참된 평안의 복을 어머니에게 허락하셨다. 천석꾼은 천 가지 근심, 만석꾼은 만 가지 근심을 짊어진다고 했다. 아무리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도 매일 고소, 고발과 사기꾼들에게 시달리며 스트레스로 병들어 죽는다면 그것이 무슨 축복인가. 응답과 축복을 받지만, 근심거리가 없고 참 행복과 참 평안 누리길 바란다. 성경에는 부유한 아브라함의 복도 있고, 평생 거지로 살다 천국에 간 나사로의 응답도 있다. 서울역에서 500명의 노숙자들을 섬기는 과거 강패출신 목사님께 후원금을 보내며 "제가 조만간 그곳에 가서 노숙하고 거지같이 살더라도 지옥 가는 것보다 예수 믿는 것이 100배 낫다는 거지 나사로의 설교를 하였습니다"라고 농담 반, 진담 반의 인사를 건넸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언약을 붙잡느냐에 따라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신다. 거지 나사로가 아닌, 모든 사람을 살리는 참된 빛의 경계를 믿음으로 붙잡고 당연한 응답받기를 바란다.

둘째,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라고 하셨다. '그마림(גמר)'이란 '타오르다, 달아오르다, 열정적으로 흥분하다'는 뜻으로, 귀신에게 사로잡혀 광란의 제사를 지내는 무당이나 사면 같은 우상 제사장들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흑암과 귀신문화에 미쳐버린 네피림의 모습을 향해 하나님은 멸절의 심판을 경고하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줄 믿고 반신되길 바란다.

셋째, "지중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셨다. 이는 별을 보고 미래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점쟁이들과 그 추종자들을 말한다. 영세 전부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알팍한 피조물에 불과한 별자리 운세에 내 인생을 맡기는 어리석음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

넷째,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하기를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을 멸절하신다고 하셨다. 이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종교혼합주의를 뜻한다. 다른 복음, 섞인 복음, 틀린 복음이다. 교회에 와서는 겉으로 복음을 외치면서도, 돌아서면 나의 오래된 고집과 아집,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섞인 복음, 망할 복음이다. 세상 지식과 잔머리로 무장한 자유주의신학(해방신학, 정치신학, 여성신학, 민주신학 등이 유럽과 남미의 수많은 교회를 텅텅 비우고 처참하게 무너뜨렸다. 오직 순수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사탄과 죄와 지옥권세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해방할 수 있다.

다섯째,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이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예배를 멀리하고 헌신과 전도, 선교를 외면하는 이른바 '가나안(안나)가' 성도들이다. 거룩한 예배시간에 몰래 게임

하거나 피식피식 바웃으며 탄 짓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피할 수 없다. 예배의 축복 속에 인생의 모든 지혜와 보화가 감추어져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오직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으로, 참 감사로, 참 기쁨으로, 영원한 진리로 결론내고 가는 것이 참된 성공이다.

여섯째, "여호와와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이다. 오직 나의 쾌락, 돈, 마약, 술, 자존심이라는 창세기 3장의 우물 안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하는 철저한 불신자상태의 영혼들이다. 스티브 잡스처럼 세상에서 수 천 조의 돈을 긁어모으며 아이디어를 창출했다한들, 결국 불치병에 걸려 상상하게 말라 죽어 지옥으로 떨어졌다면 그것이 어찌 성공이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 선 검과 같이 우리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히4:12), 나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고 내면이 아프고 찢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 하지만 그 영적 수술만이 나를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다. 이는 마치 암 덩어리를 도려내고 치료하는 생명의 광선, 곧 레이저와 같은 말씀의 '빛'의 칼이다. 이 생명의 빛으로 내 안의 모든 영적인 병을 완전히 도려내고 영육 간에 온전히 건강한 사람으로 치유 받아야 한다. 우리는 237개 나라와 세계를 살려야 할 사명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안의 그 더럽고 나쁜 영적 문제들을 절대 간직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 다 내버려야 한다.

2) 이어서 하나님은 1장 7절부터 유다의 심판을 경고하시고, 2장에서는 주변 국가인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모압, 암몬, 구스, 잇수르의 니느웨까지 모조리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신다. 이는 곧 스바냐에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복음을 모른 채 멸망해가는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전도의 천명을 하라하신 것이다. 이번 수련회에서 만난 한 목사님은 10년이 넘도록 남태평양 14개 섬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셨는데, 비누아투에서 태권도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제자 5명을 한국 훈련에 초청하고 싶다는 사연을 듣게 되었다. 비행기 티켓 값만 1인당 수백만 원이 드는 상황에서 우리는 비록 거액을 후원할 힘은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된 후원시스템을 통해 그들이 전액지원을 받고 오게 되었다. 우리 참사랑교회도 그들이 한국에 오면 정성껏 밥 한 끼를 대접하며 선교에 동참하기로 당회를 통해 예산을 결의했다. 통가 왕국의 왕족출신 엘리트들도 이번 훈련에 참석한다는 소식을 들으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마28:19-20)"는 말씀이 내 눈앞에서 성취되는 영광스러운 현장을 목도하고 있다. 여러분도 이름을 외우기도 어려운 남태평양 램프트들을 만나면 꼭 함께 셀카를 찍고 이름을 적어두며 만남의 축복을 기록하는 영적 세계화의 300%주역이 되기를 바란다.

2. 구원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면 이처럼 절대 불가능한 재앙과 멸망의 시대에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1) 첫째, 구원의 방법은 오직 '모이는 것'이다. 스바냐 2장 1-2절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모일지라도 모일지라도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 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와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와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라고 하셨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죄악 속에 뒹구는 우리일지라도 예배의 자리, WRC의 훈련자리, 다락방과 지교회에 생명 결고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축복과 구원의 날로 뒤바뀌는 기적이 일어난다.

2) 둘째, "여호와와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 너희는 여호와와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와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습2:3)"고 하셨다. 복음을 가졌다면 불법과 편법을 버리고 정직하게 정의의 길을 가야 한다. 사업을 하며 편법의 유혹에 빠지면 결국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무너지고 파멸하게 된다. 다니엘과 요셉처럼 법을 지키는 길, 정의로운 길, 겸손한 길, 헌신과 섬기는 길, 공평의 정도(正道)를 걷는 것이 진짜 영적 서밋의 길이다.

3) 셋째, 하나님의 시인표가 오면 "그때에" 온전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다. 스바냐 3장 9절에 "그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라고 하셨다. 쓰레기 같고 악한 우리의 본성을 우리 힘으로는 결코 정결하게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전권적인 은혜가 임하면 가능하다. 우리 차녀, 남편, 아내, 가족, 후대, 복음 전하고자 하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 은혜가 있길 축원한다.

4) 넷째, 3장 11절에 "그 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 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고 하셨다. 원죄의 뿌리가 교만이다. 우리는 교만하니가 예배도 집중 못 하고 단 짓고, 교만하니가 전도도 안 하고, 교만하니가 기도도 안 하고, 이 모든 것의 뿌리가 교만이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교만하니가 불평불만하고 교만하니가 우울하고,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다. 얼마나 교만했으면 그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가. 순종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상태이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그 뿌리 깊은 교만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수술하시어 영적 겸손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5) 다섯째, 스바냐 3장 12절에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 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고 하셨다. 나뭇에 모르던 이기적인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다문화 가정, 노인, 장애인, NGO사역을 품고 세상을 살리는 사회복지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약속이다.

6) 여섯째, 남은 자 램프트에게 주시는 절대 축복이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습3:13)" 입만 열면 나를 포장하기 위해 과장하고 거짓말하던 우리가, 진실하고 겸손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내가 나를 높이

지 말고 다른 사람이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 되길 바란다.

7) 일곱째, 마침내 하나님은 3장 17절의 위대한 찬양을 선포하신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쓰레기 같은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해 찬양하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넘어,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잘 것 없는 우리를 주인공삼아 기쁨의 찬양을 올리시는 이 기쁨 베풀 사랑을 온전히 누리야 한다.

8) 여덟째,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습3:19-20)"고 선포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팀을 짜서 1조 원의 순이익을 얻고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며, 모든 분야를 살릴 수 있는 인터넷을 잘하여 영적인 팀을 만들고 그 현장을 살려내야 한다. 그 시작은 무엇인가. 아무 것도 필요 없다. 오직 그리스도로 결단을 딱 내면 된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는 말씀처럼,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높이며 그 깊이와 높이를 깊이 알아갈 때 모든 지혜와 지식, 심지어 AI로봇시대까지 다 열리게 되는 것이다. 우주를 정복하는 역사는 원래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였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신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알려준 5가지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가지고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첫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난 제자들이 모였던 마가다락방의 전도운동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완전한 결론이 날 때까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다락방운동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을 위해 팀을 이루어야 한다. 복음과 전도, 사업 등 모든 것에는 든든한 팀을 이루어야 세계화할 수 있다. 미국의 거대한 빅테크 기업들을 보라. 다들 두 사람씩 친구가 팀을 이루어 시작했다. HP는 휴렛(Hewlett)과 팩커드(Packard) 두 사람이 팀을 이루어 최초로 실리콘밸리를 만들었다. 스티브 잡스 역시 스티브 워즈니악과 기술과 영업을 나누어 팀을 이루었고, 구글의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역시 팀이 되어 세계를 정복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어떤가. 팀만 이루면 서로 원수가 되고 배신하기 일쑤이다. 혼자서 황제 노릇을 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성경적인 방법대로 해야 한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셨다. 그래서 사명자들이 모여 미션홀을 만들고, 전문 사역을 펼쳐며, 두세 사람이 지교회로 모일 때,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응답, 곧 세계복음화와 모든 분야를 정복하는 놀라운 응답을 주실 줄 믿는다. 여러분은 항상 기도하며 만남을 누리야 한다. 아침에는 우주를 정복하는 기도를 누리고, 낮에는 모든 만남을 통하여 전도의 축복을 누리며, 저녁에는 영원한 축복으로 남길 작곡과 준비와 공부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싶으셨으나 그 영혼구원의 사명을 스바냐에게 맡기셨던 것처럼 오늘날 그 시대적 사명을 바로 우리에게 대신 맡기셨기 때문이다.

결론

끝으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통하여 절대 불가능 속에서 멸망과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기를 바란다. 나아가 스바냐의 언약처럼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는 모든 성도들과 램버트 후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며,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해 주실 것이다.

참사랑 RUTC현황 (예제능체임교실)

	시간 & 장소	담당자		시간 & 장소	담당자
여행캠프	모집 시	정창호 집사	서예교실	한달 토 10:00, 2층 식당	모집 중
트릭키체조교실	당분간 운영중지	정수환 집사	스키&스노보드	동계	박찬열 집사
탁구교실	매주 토 11:50, 2층	최혜숙 권사	수목캘리그래피	1, 3주 토 19:00 2층 식당	김순호 장로
기타클래스	매주 토 14, 17, 19시 4층 당회실	이명 장로	축구&풋살	한달 토 오후	김승훈 집사
트리니티찬양교실	1, 3주 수 14:30 3층 제2램버트실	임예진 권사	취미그림교실	1, 3주 토 17:30 2층 식당	김순호 장로
복음영어클래스	매주 토 15:30, 주일 19시 1층 어린이부실	주은경 권사	드럼클래스	매주 토 18, 19, 20시 5층 분당, 1층 비전홀	김승훈 집사
피아노&기조음악이론	개인별 레슨 진행 4층 찬양대실	이석 집사	WIO스마트팜	비정기적 열린 포럼 진행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정윤돈 010-8033-5678	부목사	심한걸 010-8206-2024	합동전도사	전인숙 010-8881-5222
원로목사	최정웅 010-5260-5511		이현규 010-9736-3556	사무간사	박난순 010-9930-5558
부목사	박범서 010-6335-3719	목사(전도장)	김양순 010-8328-0132		
전도인	최진희 이미자 김금남 김계자 양경심 김순호 이명 최신혜 박영인				
장로	(시무) 유경형 주재진 이수용 오국환 정연규 여동훈 박동영 최명홍 정세완 신승훈 장영균 라종화 김현 여준석 감경희 배승찬 양경심 임근일 최철규 이은숙 최신혜 이미자 김금남 최진희 박영인 유승범 김순호A 이명 김영진 (협동) 이근재 전민식 강공이 (해외) 최봉식 (은퇴) 이명재 강현자 정년영 송영희 오신자 (명예) 박철남 김계자 이정윤				
찬양대	(지휘) 고경훈 (오르간) 이서은 임예진 (피아노) 최신영 최송화 이석 (비올라) 채송아				

예배 및 모임 안내

예배			교회학교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5층, 6층 참사랑홀	태영아부	주일 오후 2:00	3층 제1랩넛트실
	2부 오전 11:00		유치부	주일 오전 11:00	3층 제2랩넛트실
	오후 2:00	1층, 3층, 5층 (부서별 예배)	어린이부	주일 오후 2:00	1층 비전홀
	오후 3:30		중고등부	주일 오후 2:00	5층 참사랑홀
수요기도회	수 오전 10:30	1층 비전홀	대학청년부	주일 오후 3:30	5층 참사랑홀
금요심야기도회	수 오후 7:30				
새벽기도회	금 오후 8:0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30	영상			
자체훈련			세계복음화전도협회훈련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새가족훈련	주일 오전 10:20	4층 당회실	산업선교	토 오전 9:00	1층 비전홀
복음소식	주일 오후 12:30	3층 중간보호센터	전도학	토 오전 9:40	
태영아공동육아	수 오전 11:30	3층 제1랩넛트실	핵심요원훈련	토 오전 10:30	
어린이사명자	주일 오후 1:00	3층 제2랩넛트실	중직자대학원	주일 오후 5:00	
중고기도회	주일 오후 1:40	5층 참사랑홀	초등전도신학원	토 오후 2:00	
집중전도신학원	수시	참사랑교회	청소년전도신학원	토 오후 2:00	

국내외선교지

선교사파송 100명(협력 및 후원기관)

- ① 심주환선교사(일본 히로시마) ② 배교은선교사(네덜란드) ③ 이종우선교사(일본) ④ 이정국선교사(러시아)
 ⑤ 황규영선교사(네팔) ⑥ 임호성목사(서울역 노숙자학교) ⑦ 왕선교사(RTS C107) ⑧ 정희권선교사(필리핀신학교)
 ⑨ 김동길선교사(케냐) ⑩ 서해영선교사(카자흐스탄) ⑪ 문철선교사(팔라완) ⑫ 벤자민목사(인도)
 ⑬ 서진태선교사(스리랑카) ⑭ 박종혁선교사(후쿠오카) ⑮ 이준형선교사(영국) ⑯ 이광식선교사(프랑스)
 ⑰ 전경무선교사(필리핀 세부) ⑱ 보바(우크라이나) ⑲ 유영애선교사(위싱턴) ⑳ 이응남선교사(미국)
 ㉑ 정석왕회장(사회복지사협회) ㉒ 배문성선교사(필리핀 팔라완)

군파송자 (4)

[육군] 송영민 나종훈 이주형 안도근

해외파송자 (26)

[미국] 최형관-권순민(권유나 권유빈) 김국한 박석훈 최봉식-최신주(최해나) 강지우 이진형-최가은 정예준
 [호주] 박영준-김수미(박윤성 박민성) 박영환 [영국] 박경아-니콜라(라나 아멜리) [네덜란드] 배교은
 [일본] 오유라 [인도네시아] 전민식 구순자

오금동과 함께 성장한 교회 |

1960년대 후반, 정부는 서울 전역의 판자촌을 정리하는 정착지 조성 이주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자촌 주민들은 청소차에 실려, 허허벌판이었던 오금동에 버려졌습니다. 한 가구에 주어진 여섯 평의 땅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가난과 고통 속에 살던 이 정착민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남대문교회의 김근숙 권사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군용 천막 하나를 빌리고, 직접 복을 치며 사람들을 불러모았습니다. 이것이 오금동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인 오금중앙교회, 지금의 참사랑교회입니다. 대머리산에 세워진 조그마한 오금중앙교회 성전은, 마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1980년 부임한 최정웅 목사와 함께, 이렇게 지역 사회 속에서 성장해 온 오금중앙교회는, 세계복음화를 마음에 품고 2005년에 참사랑교회로 이름을 변경했으며, 2007년에는 현재의 자리에 세 번째 성전을 지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참된 해답, 참된 사랑인 복음을 굳게 붙잡고, 이 복음만을 말하는 복음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참사랑교회는, 2018년 최정웅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정운돈 목사를 담임목사로 위임하여 새로운 도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참사랑교회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가입된 건강한 교회이며, 58년 동안 지역 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자라온 토박이 교회입니다.



교회 소개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

참사랑교회는 종교다원주의를 반대하며, 오직 복음만이 온 세상의 해답임을 믿는 교회입니다.

후대운동으로 후대를 살리는 교회 |

많은 후대들이 학교와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희망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참사랑교회는 후대를 살리고 인재를 키우는 것을 첫째의 우선순위로 삼고, 지역 인재 장학사업, 방과 후 활동 및 상담활동 지원과 같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선교로 세계를 살리는 교회 |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류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 세워진 참사랑교회는 창립 이후 계속해서 낙도 선교와 남아시아 선교를 후원해 왔으며, 현재는 일본 히로시마와 아프리카 남수단, 몽골 울란바토르, 필리핀 마닐라, C국 S지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 |

병들고 소외된 이들의 벗이 되셨던 주님을 본받아, 참사랑교회는 지역 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및 송파구와 협력하여 참사랑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행복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참사랑노인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램넳트 및 사회복지선교국과 협력하여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